크롬계 무기안료 시장도“정체”

환경문제 및 페인트 사용기피 … 환경친화제품 개발 서둘러야

환경문제가 주요 이슈로 등장하면서 환경에 반친화적인 무기안료 시장 전체가 주춤하고 있는 가운데, 크롬계안료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.

관련업계에 따르면, 95년 국내 크롬계 무기안료 생산은 4420톤으로 94년대비 7.2% 증가, 최근 4년동안 신장률이 10%내에 머물고 있다.

국내 크롬계 무기안료 생산현황(1995)

(단위: M/T)

구 분	생산량	점유율
경기색소	**1 800**	40.9%
삼보정밀	**1 100**	24.9
욱성화학	**800**	18.0
제일색소	**720**	16.2

크롬계안료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것은 선진국에서 크롬과 납 성분이 함유된 제품 생산을 규제하고 있고, 국내 크롬계안료 수요의 90%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페인트산업계도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하여 고급원료 및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다.

또 시장 자체의 용도다변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, 유기안료에 비해 가격상승폭이 낮아 원료가격의 인상폭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도 크롬계 무기안료 시장침체의 원인으로 풀이되고 있다.

95년 크롬계안료 생산실적을 보면, 국내 무기안료 생산량의 70%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경기색소가 약 1800톤을 생산, 총생산량의 40.9%를 차지해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삼보정밀은 1100톤을 생산해 24.9%를 차지하고 있고, 욱성화학이 800톤으로 18%, 제일색소가 720톤으로 16.2%를 차지해 4개기업이 국내 크롬계안료 생산을 거의 전담하고 있다.

95년 수입은 약 400톤으로 필리핀과 중국에서 각각 75%와 16%의 비율로 들여오고 있으며, 가격은 중국산이 1.5달러로 필리핀산보다 0.4달러 더 저렴해 중국산 수입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.

그러나 국내 페인트기업들은 수입품이 품질과 공급면에서 불안전해 훨씬 고가인 국내제품을 더 선호, 전체 수입량이 증가하지는 않을 전망이다.

수출은 국내생산의 10%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데, 특히 일본이 절반이상인 60% 정도로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으며, 그외 40%는 미국, 유럽 등 선진국으로 수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수출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공해산업으로 인식, 생산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.

크롬계 무기안료는 앞으로도 수요가 더이상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생산기업들의 유기안료로의 이전 및 환경친화적인 제품 개발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.

<화학저널 1996/12/2>